



# 차이나

CHINA Market Report

## 마켓 리포트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3

이메일 : beijingk@kita.net

### 한·중 수교 30년 무역·서비스교역·투자 동향

#### 목차

1. 한·중 무역 동향
2. 한·중 서비스교역 동향
3. 한·중 투자 동향

#### 요약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무역액은 1992년 대비 약 47배 증가하였고 2022년 상반기 양국 간 교역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
- 한·중 무역에서 양국 상호 위상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한국 무역대상국 순위에서 중국은 수출입 모두 1위를 기록하였고, 중국 무역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은 수출 4위, 수입 2위 기록
- 수교 초기에는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제품이 양국 간의 주요 무역품목이었으나 최근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늘면서 주력 수출입 품목도 변화하는 추세를 보였고, 2022년 상반기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품목 중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1992년 대비 약 172배 증가
- 2021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액(收入, 서비스 수출)은 1998년 대비 약 20배 증가하였고, 서비스 지급액(支給, 서비스 수입)은 1998년 대비 약 13배 증가
- 지난 30년 동안 양국 간 투자 위상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중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약 80배 증가한 8%를 차지하였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도 10%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 유지. 2022년 1분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계액(투자액 기준)은 865.8억 달러이고, 2022년 2분기까지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신고액 기준)은 194.5억 달러를 기록

# 1. 한·중 무역 동향

## ① 한·중 교역규모 증가 추이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지난 30년 동안(1992년~2022년) 양국 간 교역은 지속적으로 증가
  - 1992년 64억 달러에 불과하던 한·중간 교역규모는 2002년에는 412억 달러, 2012년에는 2,151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21년에는 3,015억 달러로 1992년 대비 약 47배 증가
  - 2022년 상반기 양국간 교역규모는 1,586억 달러(한화 약 187조 원)로 전년 동기대비 12.8% 증가

### 한국의 대중국 교역규모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1992	2002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상반기
교역 (수출+수입)	64	412	2,151	2,354	2,114	2,686	2,415	3,015	1,586
수출	27	238	1,343	1,453	1,244	1,621	1,326	1,629	814
수입	37	174	808	901	870	1,065	1,089	1,386	772
수지 (수출-수입)	△10	64	535	552	374	556	237	243	4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 통계자료와 중국 통계자료의 양국 간 교역액은 집계 기준 상이 등의 요인으로 일부 차이가 나며, 중국 해관총서 자료 기준 1992년 50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중간 교역규모는 2021년 3,624억 달러로 약 72배 증가
  - 중국 해관총서 자료 기준 2022년 상반기 양국 간 교역규모는 1,842억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9.1% 증가

### 중국의 대한국 교역규모 증가 추이

(단위 : 억 달러)

연도	1992	2002	2012	2014	2016	2018	2020	2021	2022 상반기
교역 (수출+수입)	50	441	2563	2,905	2,526	3,134	2,853	3,624	1,842
수출	24	155	877	1,003	937	1,088	1,125	1,489	813
수입	26	286	1686	1,902	1,589	2,046	1,728	2,135	1,029
수지 (수출-수입)	△2	△131	△809	△899	△652	△958	△603	△646	△2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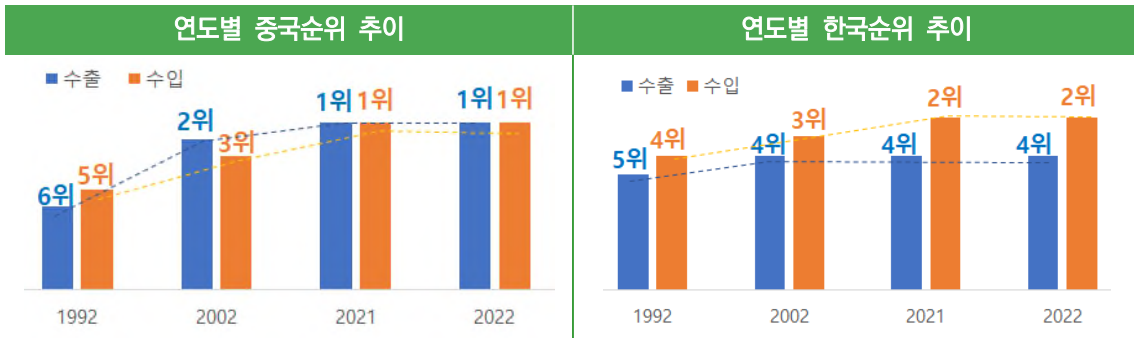
자료 : 驻韩国经商参处(한국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海关总署(해관총서)

- 지난 30년 동안 양국 간 무역 의존도는 크게 확대되었으며 한·중 무역에서 양국 상호 위상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임
- 한국 무역대상국 순위에서 중국은 1992년 수출 6위, 수입 5위였으나, 2004년부터 수출입 모두 1위로 올라선 이후부터 2022년 상반기 현재까지 최대 무역대상국 지위를 유지
- 중국 무역대상국 순위에서 한국은 1998년 수출 5위, 수입 4위였으며 점차 무역규모가 확대되어 2022년 5월에는 수출 4위, 수입 2위를 기록

### 한·중 무역에서의 양국 상호 위상 변화

구분		1992년	2002년	2012년	2022.1~6월
한국 교역국 중 중국 순위	수출	6위	2위	1위	1위
	수입	5위	3위	1위	1위
구분		1998년	2002년	2012년	2022.1~5월
중국 교역국 중 한국 순위	수출	5위	4위	4위	4위
	수입	4위	3위	2위	2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품목별 동향

- 한·중 수교 초기에는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제품이 양국 간의 주요 무역품목이었으나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등 고부가가치 제품 수요가 늘면서 주력 수출입 품목도 변화하는 추세를 보임
- 한국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1992년에는 철강판, 2002년에는 무선통신기기, 2012년에는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였으며, 2014년부터 반도체가 수출품목 1위로 등극한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순위를 유지함
- 한국의 대중국 수입 1위 품목은 1992년에는 식물성물질, 2002년에는 의류였으며, 2009년부터 반도체가 수입품목 1위로 등극한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순위 변동이 없음
- 한국의 대중국 전체 수출품목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비중은 1992년 0.2%에 불과했으나 2002년 3.3%, 2012년 13.3%로 점차 증가하였고 2022년 상반기 34.3%에 달하여 1992년 대비 약 172배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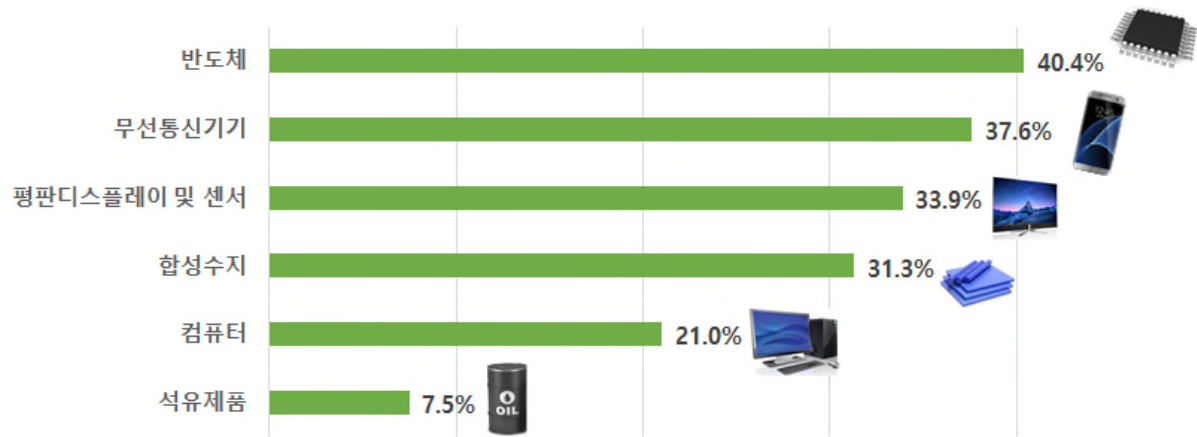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10대 수출입 품목 변화

순위	수출				수입			
	1992	2002	2012	2022.1~6월	1992	2002	2012	2022.1~6월
1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식물성물질	의류	반도체	반도체
2	합성수지	컴퓨터	반도체	합성수지	원유	컴퓨터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3	선재봉강 및 철근	합성수지	석유제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인조 단섬유직물	석탄	철강판	컴퓨터
4	가죽	철강판	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	시멘트	식물성물질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산업용 전기기기
5	인조섬유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	석탄	반도체	산업용전기기기	무선통신기기
6	인조 섬유직물	전자관	석유화학 중간원료	석유화학 중간원료	견직물	산업용 전기기기	의류	건전지 및 축전지
7	종이제품	석유화학 합성원료	기초유분	기초유분	곡실류	정밀화학원료	정밀화학원료	철강판
8	섬유 및 화학기계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정밀화학원료	어류	무선통신기기	의류
9	석유제품	가죽	석유화학 합성원료	컴퓨터	면직물	석유제품	기타중전기기기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0	기타 석유화학제품	석유화학 중간원료	철강판	비누치약 및 화장품	기타농산물	음향기기	기구부품	자동차부품

\*주 : MTI 3단위.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22년 상반기 기준, 한국의 전체 품목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3.2% 수준으로 교역국 중 유일하게 20%대를 기록함
-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컴퓨터, 석유제품 6대 품목의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평균 28.6%에 달함
- 특히 반도체(40.4%), 무선통신기기(37.6%),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33.9%) 품목의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임

## 2022년 상반기 한국 수출 주력 품목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의존도가 가파르게 증가한 요인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 영향도 크게 작용함
-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반도체 톤당 수출단가는 2007년 380만 달러였으나 2012년 470만 달러, 2017년에는 3,000만 달러 수준까지 상승
- 2022년 상반기 대중국 메모리 반도체 톤당 수출단가는 2,500만 달러로 2007년 대비 약 7배 상승

### 한국의 대중국 메모리 반도체 수출단가 추이

구분	2007년	2012년	2017년	2022.1~6월
수출액 (백만 달러)	4,422	6,259	28,018	17,850
수출중량 (톤)	1,153	1,331	914	704
수출액/수출중량	3.8	4.7	30.7	25.4

\*주 : HS코드 854232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한·중 서비스교역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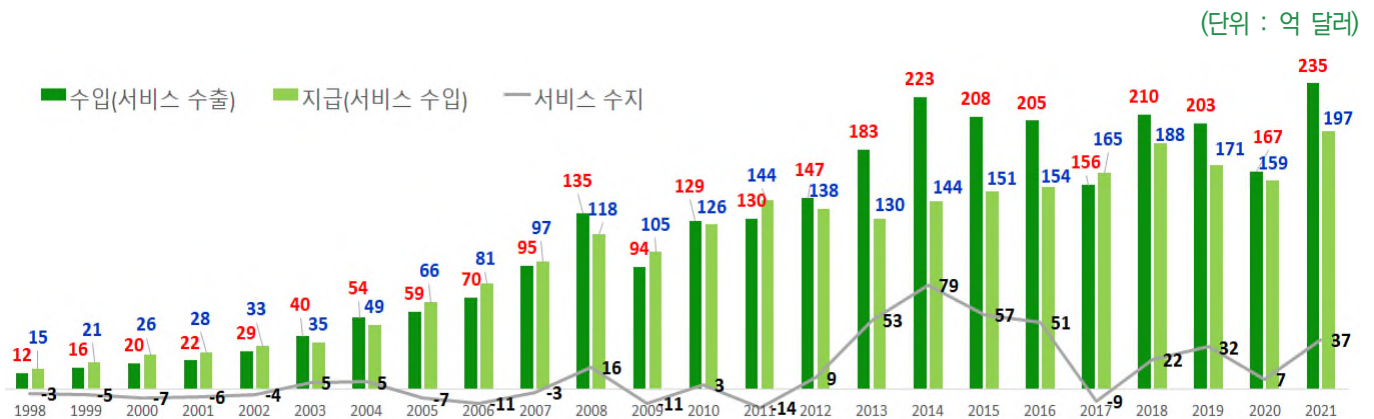
■ 한·중 수교이후 지난 30년간 우호적 상호 협력 배경 속에 양국의 서비스 교역규모도 지속 증가함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액(收入, 서비스 수출)은 1998년 11.9억 달러에서 2021년 234.6억 달러로 약 20배 증가하였고, 서비스 지급액(支給, 서비스 수입)은 1998년 15.1억 달러에서 2021년 197.4억 달러로 약 13배 증가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수지는 1998년~2011년 기간 동안 주로 적자(연평균 -3억 달러)였으나 2012년부터 흑자로 전환하여 2012~2021년 기간 동안 연평균 34억 달러 흑자 기록

- 중국과의 외교 갈등(사드 배치 문제 등)이 심했던 2017년도에는 여행서비스 수지가 줄어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기도 함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교역 추이 (1998년~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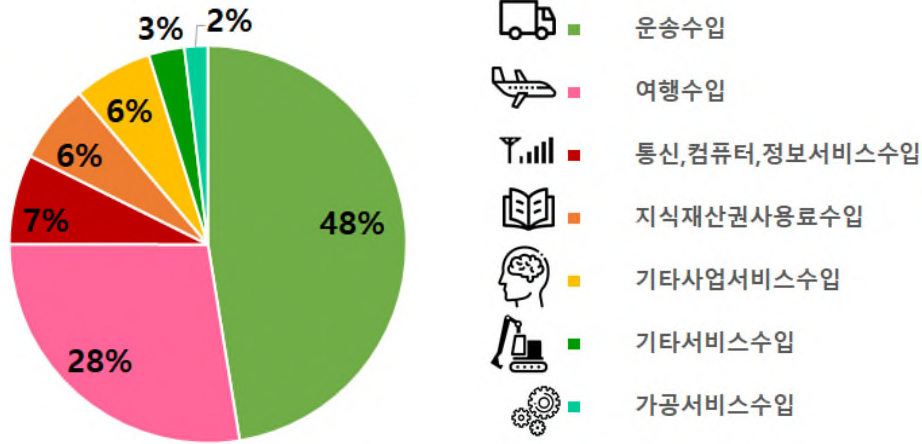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액(收入, 서비스 수출) 비중이 높은 업종은 운송서비스와 여행서비스임

- 2021년 운송서비스 비중은 48%로 가장 높았으며 최근 해운 및 항공운임 상승, 물동량 증가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운송서비스 업종은 호조세를 보임 (\*2021년 운송서비스 수입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
- 이어서 여행서비스가 28%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016년도까지는 여행서비스 수입액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여행 제한으로 주춤하는 추세임 (\*2016년 여행서비스 수입액 비중 49.5%)

## 2021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수입(收入, 서비스 수출) 업종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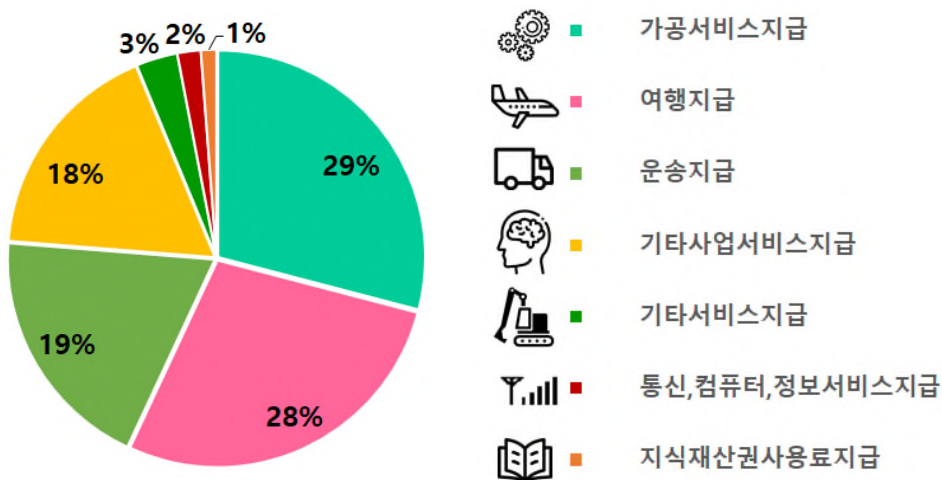
\*주 : 기타 사업 서비스(其他商业服务) : 연구개발, 전문 경영 컨설팅, 기술, 무역 등의 서비스

기타서비스 : 개인 문화오락(영화, 라디오, 방송, 음악 등의 콘텐츠 및 건강·교육 등 포함), 건축, 보험금융, 정부 서비스 등 포함

■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지급액(支給, 서비스 수입) 중에서 가공서비스, 여행서비스, 운송서비스 업종 순으로 비중이 높음

- 대중국 가공서비스 지급액은 1998년 2억 달러에서 지속 증가하여 2018년 72.5억 달러로 정점을 찍었으며, 2021년에는 57억 달러로 1998년 대비 약 29배 증가
- 2021년 가공서비스 지급액 비중은 29%를 차지하였으나 2004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가공서비스 지급액은 감소하고 여행, 운송, 기타 사업 서비스 지급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 (\*가공서비스 지급액의 최근 10년 연평균 비중 41.2%)

## 2021년 한국의 대중국 서비스 지급(支給, 서비스 수입) 업종별 비중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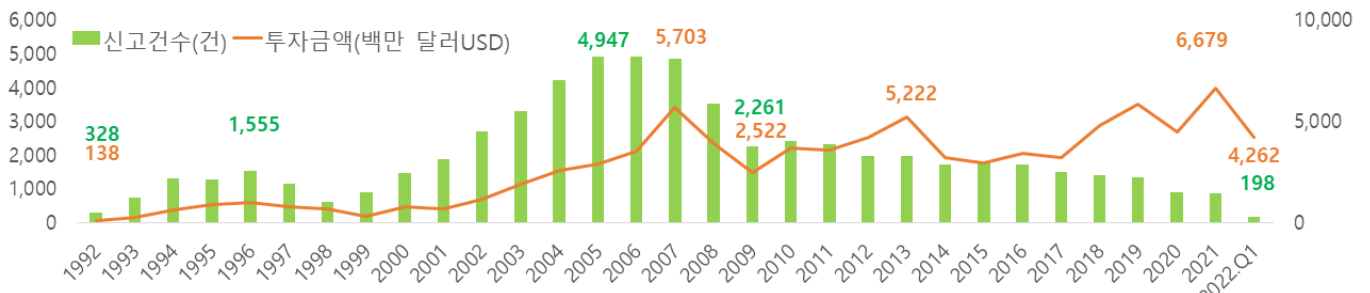
\*주 : 기타 사업 서비스(其他商业服务) : 연구개발, 전문 경영 컨설팅, 기술, 무역 등의 서비스

기타서비스 : 개인 문화오락(영화, 라디오, 방송, 음악 등의 콘텐츠 및 건강·교육 등 포함), 건축, 보험금융, 정부 서비스 등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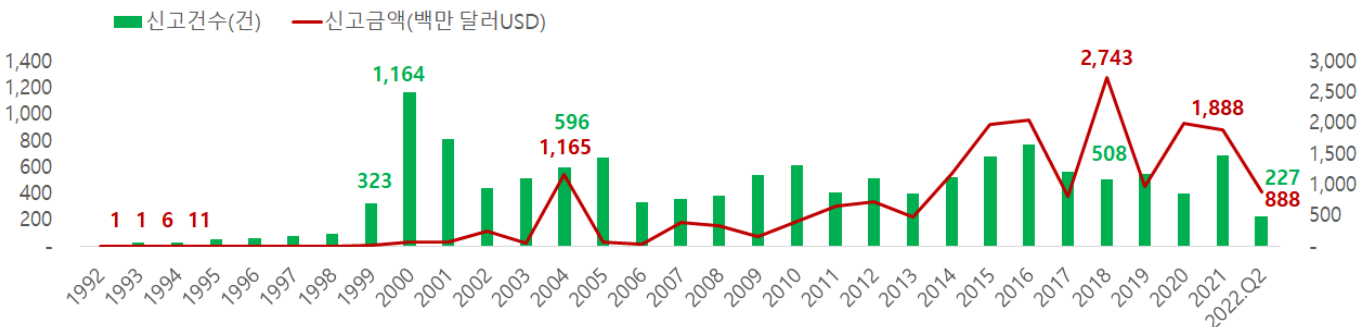
### 3. 한·중 투자 동향

-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07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규모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으나 2008년~2020년 기간에는 대내외 투자환경 변화 등 다중 요인으로 감소세를 보임
  - 투자금액 기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1992년 1.4억 달러에서 2007년 57억 달러로 약 41배 증가했으나 2008년~2020년 기간 연평균 4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
- 2021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신고건수는 882건으로 전년 대비 31건 감소했으나, 건수당 투자액 증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 투자금액은 전년 대비 48% 증가한 66.8억 달러 기록
  - 2022년 1분기 실질 투자금액은 42.6억 달러로 집계
- 한·중 수교 초기인 1992년 신고금액 기준, 중국의 대한국 투자액은 105만 달러로 같은 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보다 약 131배 작은 규모였으나 점차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임
  - 2021년 중국의 대한국 투자 신고건수는 686건이며 투자 신고금액은 약 19억 달러로 같은 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금액보다 약 3.5배 적은 수준으로 투자 규모 격차가 이전보다 크게 좁혀짐

한국의 대중국 투자 추이



중국의 대한국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대한국 투자 비중은 약 80배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대중국 투자 비중 또한 10%대 이상의 높은 수준을 유지
  - 한국에 투자하는 주요 국가 중 중국의 투자 비중은 1992년 0.1%(23위)에 불과했으나 2002년 2.7%(7위), 2012년 4.5%(5위), 2022년 상반기 8.0%로 증가하여 중국은 대한국 주요 투자국 순위 5위에 등극
  - 한국의 글로벌 투자액 중 대중국 투자 비중은 1992년 10.0%(3위)에서 2002년 28.1%(1위)로 확대되었고, 2012년에는 14.4%(2위), 2022년 1분기에는 16.8%(2위)로 중국은 한국의 주요 투자대상국 순위 2위로 상위권을 유지
  - 2022년 1분기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 누계액(투자액 기준)은 865.8억 달러이고, 2022년 2분기까지 중국의 대한국 투자 누계액(신고액 기준)은 194.5억 달러임

### 한·중간 투자 위상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

연도	한국의 대중국 투자			중국의 대한국 투자		
	금액	비중	순위	금액	비중	순위
1992	138	10.0	3위	1	0.1	23위
2002	1,160	28.1	1위	248	2.7	7위
2012	4,263	14.4	2위	727	4.5	5위
2021	6,679	8.7	3위	1,888	6.4	5위
2022	4,262(Q1)	16.8	2위	888(Q2)	8.0	5위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주 : 한국의 대중국 투자 = 한국의 글로벌 투자액 중 중국의 비중 (\*투자금액 기준)  
 중국의 대한국 투자 = 한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액 중 중국의 비중 (\*신고금액 기준)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총 2만 8,265개사(한국수출입은행 자료 기준)로 집계됨
  - 연도별 중국 진출 우리나라 신규법인 수는 1992년 174개, 2002년 1,434개, 2012년 741개, 2021년 262개, 2022년 1분기 64개로 수교 초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7년 사드 및 2020년 코로나를 계기로 다시 감소하는 추세
  - 2006년 중국 진출 우리나라 신규법인 수는 2,392개사로 1992년~2021년 기간 동안 최고치 기록
- 2021년 기준 신규법인 수가 많은 상위 5대 지역은 산둥성(山东省, 48개사), 장쑤성(江苏省, 43개사), 상하이(上海, 41개사), 광둥성(广东省, 23개사), 베이징(北京, 17개사)으로 나타남

- 2022년 1분기 중국 진출 우리나라 신규법인 설립 실적은 상하이 13개사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장쑤성 12개사, 산둥성 10개사로 집계됨
- 중국 상무부 발표<sup>1)</sup>에 따르면 199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누적 862억 달러로 홍콩,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일본, 싱가포르, 미국에 이은 6위이며, 설립한 기업 수는 총 6만 9,389개사로 홍콩, 타이완, 미국에 이은 4위로 집계

### 대중국 투자 상위 15개 국가(지역) 현황 (\*2020년 누계 기준)

순위	국가(지역)	금액(억 달러)	비중(%)	설립기업수(개사)	비중(%)
1	홍콩	13,013.1	53.3	490,375	47.1
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1,747.8	7.2	25,053	2.4
3	일본	1,190.7	4.9	53,633	5.2
4	싱가포르	1,105.1	4.5	27,257	2.6
5	미국	901.9	3.7	73,556	7.1
6	<b>한국</b>	<b>861.9</b>	<b>3.5</b>	<b>69,389</b>	<b>6.7</b>
7	타이완	704.0	2.9	117,547	11.3
8	케이맨제도	469.0	1.9	3,796	0.4
9	독일	364.1	1.5	11,300	1.1
10	사모아	309.9	1.3	9,214	0.9
11	영국	263.7	-	-	-
12	네덜란드	238.4	1.0	3,807	0.4
13	마카오	194.6	0.8	20,817	2.0
14	프랑스	188.4	0.8	6,323	0.6
15	모리셔스	154.6	0.6	2,505	0.2

자료 : 중국 상무부

- 수교 초기인 1992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1.2억 달러(중국 상무부 자료 기준)에 불과했지만 점차 증가하여 2020년 36.1억 달러를 달성
- 연도별 투자액을 보면 2004년 62.5억 달러로 전체의 10.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고, 연도별 신설 기업수는 2005년 6,115개사(중국 상무부 자료 기준)로 전체의 13.9%를 차지하며 최고점을 찍은 이래 매년 1,000~2,000여개 기업이 신설
- 한국의 대중국 연평균 투자액은 30억 달러에 근접하였고 연평균 설립 기업수는 2,300개사 정도임

1) 한국 통계자료와 중국 통계자료의 집계 기준 상이 등의 요인으로 본문 내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 및 신설기업 수는 일부 수치가 상이함

## 1992년~2020년 한국의 대중국 투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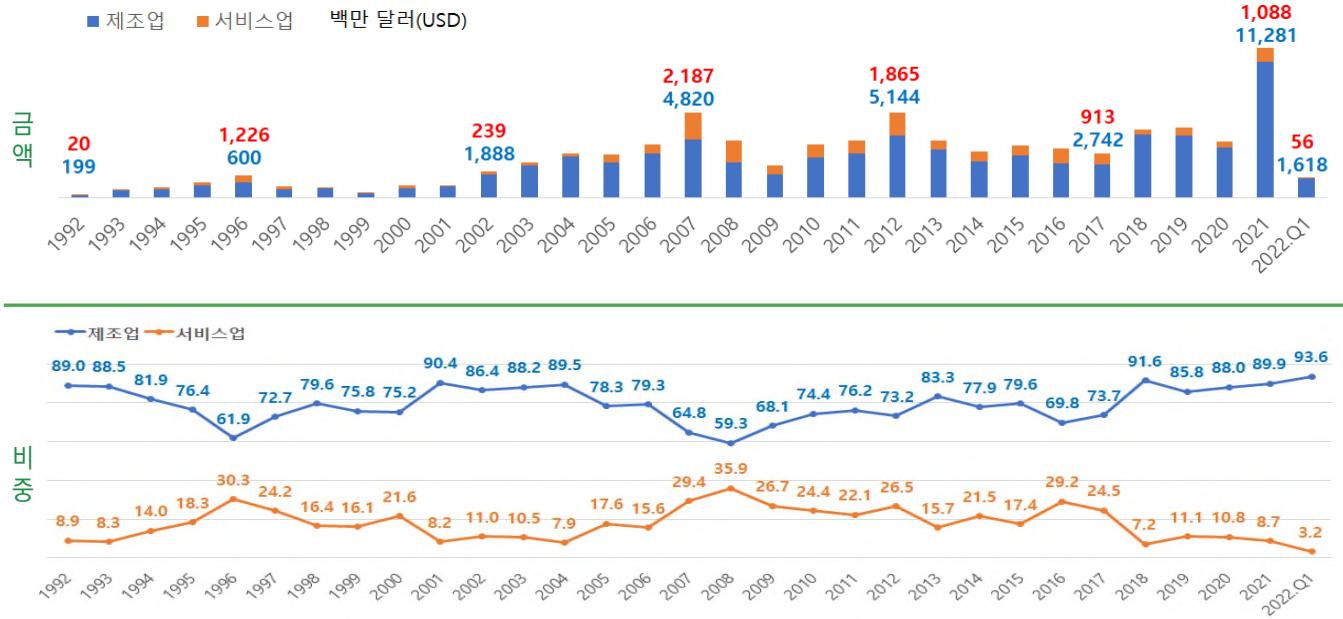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개사)

연도	실질투자액			신설 기업수		
	한국	전체 국가(지역)	비중(%)	한국	전체 국가(지역)	비중(%)
1992	1.2	110.1	1.1	650	48,764	1.3
1993	3.7	275.1	1.4	1,748	83,437	2.1
1994	7.2	337.7	2.1	1,849	47,549	3.9
1995	10.4	375.2	2.8	1,975	37,011	5.3
1996	13.6	417.3	3.3	1,895	24,556	7.7
1997	21.4	452.6	4.7	1,753	21,001	8.4
1998	18.0	454.6	4.0	1,309	19,799	6.6
1999	12.7	403.2	3.2	1,547	16,918	9.1
2000	14.9	407.1	3.7	2,565	22,347	11.5
2001	21.5	468.8	4.6	2,909	26,140	11.1
2002	27.2	527.4	5.2	4,008	34,171	11.7
2003	44.9	535.0	8.4	4,920	41,081	12.0
2004	62.5	606.3	10.3	5,625	43,664	12.9
2005	51.7	724.1	7.1	6,115	44,019	13.9
2006	39.9	727.2	5.5	4,262	41,496	10.3
2007	36.8	835.2	4.4	3,452	37,892	9.1
2008	31.4	1,083.1	2.9	2,226	27,537	8.1
2009	27.0	940.6	2.9	1,669	23,442	7.1
2010	26.9	1,147.3	2.4	1,695	27,420	6.2
2011	25.5	1,239.9	2.1	1,375	27,717	5.0
2012	30.4	1,210.7	2.5	1,306	24,934	5.2
2013	30.5	1,239.1	2.5	1,371	22,819	6.0
2014	39.7	1,285.0	3.1	1,558	23,794	6.6
2015	40.3	1,355.8	3.0	1,958	26,584	7.4
2016	47.5	1,337.1	3.6	2,019	27,908	7.2
2017	36.7	1,363.2	2.7	1,627	35,662	4.6
2018	46.7	1,383.1	3.4	1,882	60,560	3.1
2019	55.4	1,412.3	3.9	2,108	40,910	5.2
2020	36.1	1,493.4	2.4	2,014	38,578	5.2

자료 : 중국 상무부

- 산업별 투자 동향을 보면, 한국의 대중국 투자 가운데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중국의 대한국 투자는 수교 초기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
- 한국의 대중국 제조업 투자 비중은 1992년 89%였으며, 30년 평균 7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업 투자가 감소하자 2022년 1분기에는 93.6%까지 비중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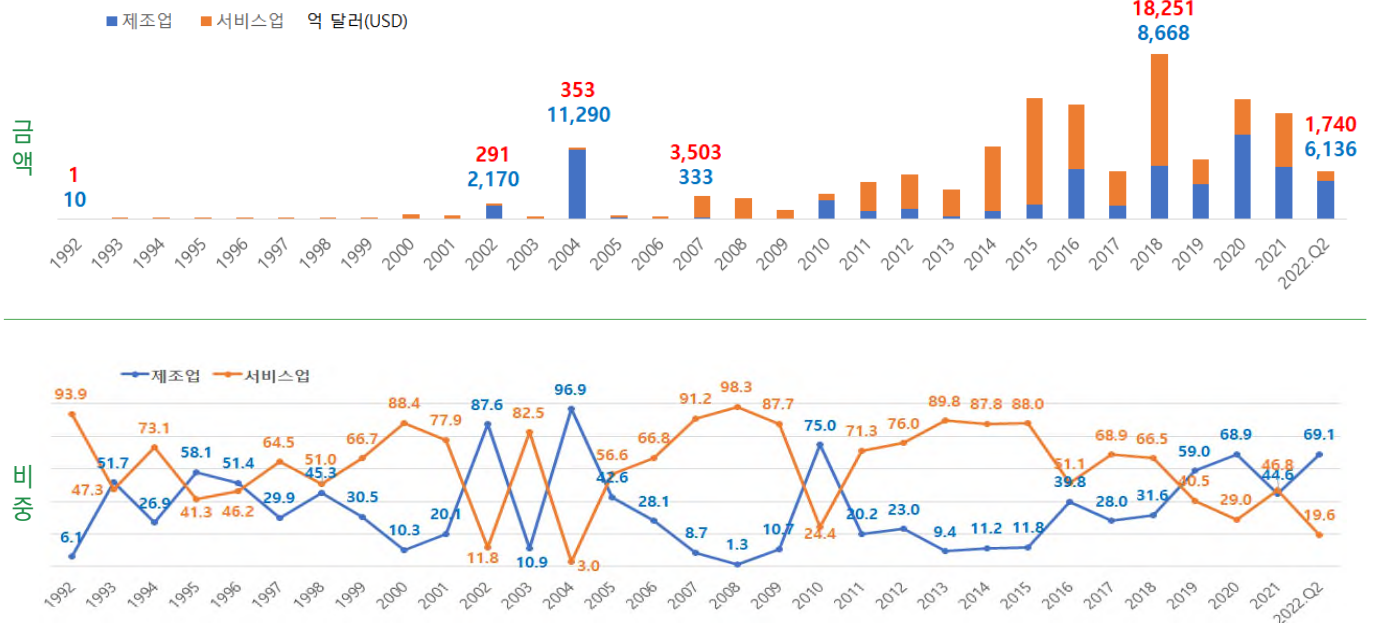
## 한국의 대중국 산업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반면 대중국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1992년 8.9%에서 2008년 35.9%, 2016년 29.2%까지 확대 되었으나 코로나 여파로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수요가 줄자 2022년 1분기에는 3.2%로 대폭 비중 축소
- 중국의 대한국 서비스업 투자 비중은 1992년 93.9%에 달했으며 이후에도 1995년, 2002년, 2004년, 2010년을 제외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19년부터 제조업의 투자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

## 중국의 대한국 산업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산업통상자원부

## 참 고 자 료

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중 수교 30년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2021년 38호
2. 한국무역협회 (<https://stat.kita.net/>)
3. 한국수출입은행 (<https://www.koreaexim.go.kr/index>)
4. 산업통상자원부 (<https://motie.go.kr>)
5. 한국은행 (<http://www.bok.or.kr/portal/main/main.do>)
6. 한국주재 중국대사관 경제상무처  
(<http://kr.mofcom.gov.cn/aarticle/Nocategory/200904/20090406158199.html>)
7. 중국 통계연감